

주부 대상 인터넷 사이트 운영의 실제
[주부 대상 인터넷 사이트 운영의 실제]
[주부 대상 인터넷 사이트 운영의 실제]

주부 대상 인터넷 사이트 운영의 실제

송혜림(울산대학교주 아동·가정복지학과)

http://www.juhuril.com.nv

가정학(생활과학)은 가정생활과 이를 둘러싼 환경, 그 상호작용을 핵심적인 연구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제반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가정학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가정생활의 구조와 구성, 가족원의 역할과 가치관 등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관찰, 분석, 진단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질 향상과 개인·가족·사회의 복지증진이라는 학문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21세기 생활환경의 변화는 '생활의 빠른 리듬과 맥박, 정보사회의 새로운 요구, 변화를 관리하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핀란드 의원 Dromberg의 연설문에서-이기영, 1998:48), 따라서 이처럼 가정생활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우리 가정학 연구자들로 하여금 연구의 방향과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가정생활이 어떤 토대를 갖추어야 인간 주체의 복지 증진이 가능하며 보다 인간다운 삶이 가능해질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이 문제에 접근하는 동시에 이 새로운 문명시대에 가족원 그리고 가정생활이 직면한 문제와 요구는 무엇인가를 밝혀냄으로써 사회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것도 우리 연구자들의 사명이다.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21세기 가정학의 과제로 이기영은 가정생활의 현상과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 능력 있는 전문인의 양성 그리고 사회변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들고 있다(이기영, 1998:48~52). 이를 위하여 우리 가정학 연구자들은 생활환경의 변화 중 무엇에 더욱 주목하여야 하는가를 찾아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가정생활의 변화를 예측하고, 가정생활기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를 양성·배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인간과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필요한 변화의 흐름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Alvin Toffler는 미래사회를 전망하면서 미래사회 권력의 근원은 지식과 정보라 하였

다. 사회구성원들은 더 많은 데이터, 정보 그리고 노하우를 필요로 할 것이며(임정빈, 1997:11), 따라서 우리는 정보화사회라는 이 시대 특성에 주목하여 가정생활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결시켜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도구가 바로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학의 다양한 전공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어떻게 가족원의 요구를 파악할 것이며, 요구충족을 위하여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별히 가정학의 하위전공영역으로서 가정자원관리학에 초점을 두어, 가정자원관리학 연구자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그 동안의 축적된 연구결과와 성과들을 일반 가정생활과 연결시켜 온 과정 그리고 이러한 작업 속에서 어떠한 전망을 갖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결국 가정학 연구자들에게 학문의 실천성 차원에서 필요한 extension service의 범례를 제시함으로써 실천적 연구범주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대가 가정자원관리학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우리의 연구를 통하여 가정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는 그 동안 가정자원관리학 연구자들이 다양한 토론의 장과 세미나, 연구를 통하여 모색해 온 주제이다. 의생활이나 식생활, 주거 또 가족, 아동, 소비자 등 다른 전공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리과정이라는 연구주제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수월치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전문성과 학제성이 간과되어 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그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정자원관리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이 가정자원관리학이라는 독자적인 학문분야의 연구결과를 일반가정에 직접 전달하고 제공하며 가족원의 요구에 직접 대면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연구의 방향과 흐름을 가져야 한다는 공유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힘입어 가정자원관리학이 속해 있는 가정학의 학문적 목표인 가정생활의 질 향상과 가족원의 복지증진을 실제적인 현장 속에서 달성하고자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1999년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를 설립하였다.

21세기주부문화연구소는 그 활동의 하나로 <www.jubu21.or.kr>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다양한 구성과 운영을 통하여 가정생활의 인적·물적 체계 그리고 그 상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적인 향상을 도와주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의 홈페이지 운영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 학문의 실천성을 어떻게 구체화, 가시화할 것인가의 한 사례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기까지의 배경을 설명한 다음, 홈페이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의 실재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향후 전망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 연구소 홈페이지(jubu21.or.kr) 제작과 운영과정

단체를 설립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기까지 주축이 되어 온 가정자원관리학 연구자들이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가정자원관리학의 실천성이다. 독자적인 학문분야에 대한 시대적 요구이기도 한 실천성은 가정생활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며, 생활의 다각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실천전략들을 제시함으로써 검증 받을 수 있다(구혜령/조영희, 2000:19~20).

그 동안 가정자원관리학 분야에서도 개별가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원관리의 전략, 이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의 탐색을 비롯하여 가정기능강화를 위한 가정생활척도개발, 가정생활설계 그리고 가정철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하여 왔다. 최근에는 여기에서 공공가정의 경영 및 가족기업과 재택근무로까지 그 연구범주를 확장하고 있다.

실천학문으로서 가정관리분야 연구의 사회적 기여와 평가를 주제로 한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26차 학술대회에서는 가정자원관리분야의 연구주제를 크게 관리이론, 관리대상 그리고 관리실제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을 보면 관리체계 및 과정, 가정생산 및 가족경제, 생활의 질 및 만족도, 생활설계 및 실태, 가사노동, 시간자원, 가정기기, 여가, 공공가정, 가정복지사, 가족기업 및 재택근무를 들 수 있다(정영금, 1999:82).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연구의 결과를 상술한 실천적 측면에서 평가할 때, 실제 가정의 관리상황을 개선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소리도 높다. 가정자원관리학 연구논문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반성을 함에 있어, 정영금은 연구의 실용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상게서: 88~89).

실용화를 위한 노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전달체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학문의 연구결과는 그 대상이 되는 현장에 적용됨으로써 가시화될 수 있는데, 이를 매개하는 전달체계는 그러므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정자원관리학의 경우 현장은 결국 일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양한 지역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개별 개별의 가정들에게 우리의 연구결과를 전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거니와 지극히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한계가 가정자원관리학 연구의 실용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실천성을 약화시켜온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학문적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예컨대 사회복지학의 전공자들이 과정 중에 익힌 지식과 기술, 정보를 갖고 전문가로서 복지대상자와 만날 수 있는 전달체계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관이나 지역 사회 복지관련 시설은 매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이나 기구는 조직적, 체계적인 운영에 따라 복지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 주며, 따라서 이론의 실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정자원관리학에는 전달체계라고 생각되는 공간이나 매개체 혹은 일정한 훈련센터나 진출영역 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자원관리학의 연구결과를 실제 가정생활에 적용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전달체계의 부족은 곧 현장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결과되며, 또한 이러한 점은 연구주제와 방법론의 선정 등에 있어 현실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실제 가정생활이 필요로 하는 자원관리 관련 지식과 정보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현실적응력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도 있다 (구혜령/조영희, 2000:20~21).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가정자원관리학의 현장실천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와 연구대상이 직접 만나고 의사를 교환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연구결과가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조직적·체계적 장으로서 전달체계를 생각할 때, 현 시점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현재도 그렇거니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목할 만한 전달체계가 컴퓨터라고 할 수 있다. 개별가정의 관리주체 및 구성원들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는 연구자와 대상들 간 매우 의미있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홈페이지가 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가정자원관리학의 주된 연구주제가 가정생활의 운영과 관리과정이라는 차원에서 지극히 가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생활의 관리주체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관리자의 측면에서 가정자원관리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적용할 때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이는 주부만이 가정생활을 관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부를 통하여 가정생활을 연구하고 적용할 때 보다 효율적이라는 관점의 표현이며, 궁극적으로는 가정자원관리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가정생활의 개별 주체들 모두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II. 홈페이지의 구성체제와 내용

1. 구성체제

홈페이지 주소는 <www.jubu21.or.kr> 이며, 주부문화연구소를 상징하는 주연아줌마를 대표적인 캐릭터로 한다. 주요 메뉴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뜨거운 감자(가정생활 운영의 이슈가 될 수 있는 테마에 대한 견해 제공, 찬반토론)

전반적인 가정생활문화의 관점에서 그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는 테마를 선정. 홈페이지 운영자와 이용자간의 자유로운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주제 : 취업주부의 아이 키우기(5~6월)

고부관계(7월)

남편의 가사노동참여(7월)

휴가와 주부, 휴가와 남편(8월)

명절과 주부(9월)

인터넷과 생활의 변화(9월)

9, 친정어머니에 대해 (10월)

② 사이버강의

가정자원관리학의 전문성과 통합성을 병합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로 운영하고 있다.

주제 :

㉠ 주부론 (6, 7, 8, 9월)

주부를 대상으로 한 홈페이지의 목표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6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제공되었다.

- 이 땅에서 주부로 산다는 것은
- 가정은 휴식의 장소?
- 주부는 가족이기주의의 주범?
- 주부 : 현모양처, 신 현모양처?
- 함께 만나기, 일하기 그리고 힘 모으기
- 주부들의 의식이 사회주부로 바뀌어야

㉡ 가사노동론(9월부터 12월까지 5가지 소주제)

주부들이 주로 하는 가정에서의 노동, 생명을 낳아 기르며 가족을 살리는 살림, 그 일을 하는 주부들의 실상과 느낌, 전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집안일: 어떤 것? 어떻게 하는 거지?

- 집안일의 전담자인 주부, 과연 무엇을 느끼며 사는가?
 - 주부가 하는 집안일,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인가?
 - 여성의 취업은 날로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집안일은 누구의 몫인가?
 - 기술의 발달로 편리해진 세상, 과연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 ㉔ 예정강의 : 가정생활설계론, 생활시간과 여가론, 가계재무관리론, 가정생활문화론 (2001년도)

③ 사이버생활상담 - 가정자원관리학의 전문성과 통합성의 균형을 취하기 위하여 일곱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 ㉑ 가정생활 관련 법률/의료
- ㉒ 육아/자녀교육
- ㉓ 가족관계
- ㉔ 소비생활
- ㉕ 가사노동
- ㉖ 생활설계
- ㉗ 일반적인 가정생활문제와 기타

○ 행정관리학 관련 분야
○ 시가시골
○ TV로 보지 않는 가사
○ 주부들이 하는 가사
○ 가사노동 관련 가사

④ 생활 속의 이야기

가정생활 관련 뉴스와 생활정보의 제공/개성 있는 가정생활 이야기/세계의 주부/가정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⑤ 주연(주부문화연구소)생각

새로운 가정생활문화, 가정관리문화를 위하여 특정 주제를 선정, 이에 대한 21세기 주부 문화연구소의 입장을 제공, 이에 대한 홈페이지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 주제 : 조기유학(5월)
 동반자(1, 2) (5월)
 늦둥이(6월)
 전업주부, 취업주부(7월)
 취업주부의 아이 키우기(8~9월)
 정보사회의 여성(9월~)

⑥ 동아리방 -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주부들이 공통의 관심을 공유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10월말부터 동아리방 운영을 예정하고 있다.

주제 : 가정살림 대충하기 방

주말부부 방

취업한 아내를 둔 남편들의 방

시부모와 함께 사는 주부들의 방

커플 중심의 결혼문화 만들어가기 방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주부들의 방

외동이를 둔 부모들의 방

2. 세부적인 내용 - 사이버생활상담을 중심으로

본 사이트의 한 메뉴인 가정생활상담은 가정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에서부터 계획, 예방, 질적인 향상 등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상담의뢰인인 주부이나, 기타 다른 가족원(딸, 남편, 친정/시부모 등)도 30% 정도 차지한다.

각 영역에 따라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의 운영위원(대학교수)과 전문상담위원이 상담에 응해주고 있다. 상담이 올라오고 나서 하루만에 응답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상담위원들 간의 토론과 협의가 더 필요한 경우 날짜 조정을 하고 있다. 본 사이트에서 주된 타겟으로 하는 주부 그리고 가정생활과 관련되는 범주에서 벗어난 상담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더 적절한 다른 사이트를 소개하고 상담요청자의 이 메일로 직접 알려주고 있다.

사이버생활상담 메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률/의료

9월 말 현재 총 111건 중 43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담주제이다. 의료부분에는 부부의 성, 자녀의 성, 자녀의 발달 내용이 주를 차지하며, 그 밖에 가족응급처치나 심리적 불안감에 대한 상담요청도 있다.

법률에서는 주택계약, 공동명의, 이혼 관련 법률절차, 소비자문제 때의 법적 권리, 혼전관계에서의 권리, 남편의 언어적/물리적 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등 매우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전문상담위원은 현직 의사(가정의학과, 비뇨기과)와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19/111
2) 육아/자녀교육

사이트에는 총 19건이 올라와 있는데, 주로 학령 전기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아이의 친구 사귀기, 예절교육, 성교육, 생활교육, 좋은 습관 길르기, 외국에서 자녀기르기, 남편과 아이의 좋은 관계, 일정 기간 엄마와 떨어져 지낼 아이의 양육문제, 기타 발달과정에서의 고민 등이다. 육아/자녀교육 상담은 아동학 전공 교수와 강사, 어린이집 원장이 맡고 있으며, 상담내용에 따라서 비뇨기과 의사와 가족관계학 전공교수가 분담하고 있다.

27/111
3) 가족관계

상담주제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영역으로 총 27건이다. 그 내용도 매우 다양하여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고부관계, 친정부모와의 관계 등의 영역에서 부적응과 갈등, 의사소통의 문제, 양부모자녀 간 문제 등이 올라오고 있다. 특별히 주부와 남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눈에 띄는데, 예를 들면 남편의 나쁜 습관, 성관계에서의 부적응, 남편의 외도, 남편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의존성, 남편의 책임감 없음 등이 주부들에게 상당한 갈등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담 전문위원은 가족관계학, 가족치료학 전공 교수와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다.

1/111
4) 소비생활

소비생활 관련 상담은 지난 5개월 동안 1건이 올라 왔는데, 주부의 낭비벽에 대한 상담이다. 전문상담위원으로는 소비자학 전공 박사와 교수,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원 등이 있다. 밑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소비생활과 관련되면서도 이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은 상담 건수까지 합하면 상담요청건수가 더 증가될 수 있다.

3/111
5) 가사노동

가사노동 관련 상담은 세 건이 올라와 있다. 가사노동의 화폐적 가치, 가사노동 분담, 가사노동 표준을 주제로 한 상담이며, 전공교수가 상담에 응하고 있다.

2/111
6) 생활설계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 중년 후기에 자녀결혼을 시키고 나서 나머지 인생의 설계에 대한 상담 그리고 노년기를 대비하여 재무설계 뿐 아니라 생활시간, 가족관계, 여가생활 등 종합적인 생활설계에 대한 상담을 요청한 내용도 있다.

16/111

7) 일반적인 가정생활문제와 기타

가정생활이 그렇듯이 딱히 어느 한 영역에만 속하지 않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주로 일반적인 가정생활문제와 기타에 포함되는데, 여기에 올라온 상담은 그 핵심이 되는 주제에 따라 소비생활이나 가족관계, 법률/의료, 육아/자녀교육 등의 영역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내용도 발견할 수 있다. 남편의 거짓말/남편과의 성격차이/남편의 외도나 낭비벽 등으로 인하여 가정생활 전반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 며느리와와 불화,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가정생활의 다른 영역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내용,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 전업주부의 갈등 등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다. 총 상담건수는 16건이며, 주제에 따라 관련되는 전문상담위원이 상담에 응해주고 있다.

- 사이버생활상담에 대한 분석과 진단

본 사이트에서 사이버생활상담 메뉴를 운영하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우리의 연구대상인 가정생활이 현재 어떤 문제를 갖고 있으며 그것이 어디에 기인하는가를 가정생활의 주체자들을 통하여 파악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성과 주제선정, 방법론 탐색 등에서 보다 효율을 기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짧은 기간이나마 연구원들이 경험한 것은, 현재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범주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가정이라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사이트 전문상담위원들의 평가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상담내용이 더 전문적인 치료/해결기관과 연결되어야 풀릴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가정학 연구자들이 어떤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연구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목표는 그 동안의 축적된 연구를 통하여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실제 가정생활의 주체자들이 가정생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공하고 적용한다는 목표이다. 이는 우리 연구자들이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 필요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이다.

Ⅲ. 전 망

본 연구는 가정자원관리학 연구자들이 주부라는 가정관리의 주체를 대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학문의 실천성을 구체화, 가시화 시켜 온 노력의 과정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관련 연구자들은 효율적 전달체계인 online을 통해 연구자와 가정을 연결하고,

우리의 연구결과와 축적된 내용들을 가정생활과의 교류 속에서 전달, 교환함과 동시에, 가정의 요구를 파악, 이를 반영한 연구방향성의 기점을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유용성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더욱 이러한 업무의 필요성과 중요성 증가할 것이며, 가정학 관련 영역에서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 가정학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전문가를 배출해야 하는가가 보다 명확해 졌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가정학은 내외부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문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가정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전문적 교육도 필요 없고, 가정생활주기 상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무도 그 교육과 훈련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가정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서 이는 한편으로는 당연한 도전일 것이나, 또 한 편으로 생각할 때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가정생활이 보다 주체적·적극적으로 스스로의 요구를 표현하고 문화의 변화,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대중교육 혹은 평생교육과 같은 형태로 가정학의 연구결과들이 보다 실용화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인터넷 사이트가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학회에서 이 연구가 <가정학 관련 벤처창업>의 한 사례로 소개되는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전망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jubu21 사이트는 원래부터 상업적 목표를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구성·운영되고 있다. 본 사이트는 기존의 여성관련 학문분야에서 주변부의 역할을 해 오던 '주부'라는 대상, 그러나 또한 가정학문 분야에서는 상당히 기능적인 면에 치중하여 연구해 오던 그 '주부'라는 대상에 대하여 보다 실제적인 모습을 보고자 하였으며, 주부를 통하여 이 시대 가정생활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 진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사이트의 목표와 관련하여 불 때 벤처창업의 한 범례가 되기는 힘들다고 보인다.

다만 적용의 범주로 생각할 때, 연구자들의 이 사이트를 운영해 온 지난 5개월은 긴 시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련사업들로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방송을 통한 대중교육이나 토론을 기획하고 참여할 기회도 있었고 각 언론매체 지면을 통한 기사나 관련 글의 발표도 지속적으로 요청 받고 있다. 이는 상당 부분 본 사이트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의 결과로 평가될 수 있는데, 따라서 online과 offline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online 상에서의 사이버강의를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주부대학과 연결시키는 것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본 사이트는 가정자원관리학의 학문적 목표 달성 그리고 연구자들의

통찰력 증진이라는 순수한 목표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본 사이트에 DB구축, 배너광고, 패널리서치 등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이윤추구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정학 관련 벤처창업을 위한 방향 및 가능성 모색과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본 사이트의 역할과 기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공인숙 외(1996). 기술에서 과학으로 : 과학에서 인간으로. 대한가정학회 제 49차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21세기를 향한 가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 22~46.
- 구혜령/조영희(2000).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를 통한 가정자원관리학 연구의 현장실천성 모색.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27차 총회 및 학술대회 <지역사회에서 가정관리학 분야의 현장실천>. 14~33.
- 박명희(1999). 가정관리분야 연구! 과연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가?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26차 학술대회 '실천학문으로서 가정관리분야 연구의 사회적 기여와 평가' : 1~13.
- 이기영(1998). 인간과 생활환경에 관한 가정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 편. 인간과 생활환경. 학지사. 15~56.
- 이기춘 외(1996). 21세기 가정학의 발전적 과제. 대한가정학회 제 49차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21세기를 향한 가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 63~90.
- 임정빈 (1997). 21세기의 생활환경 변화.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제 1회 학술심포지움 <21세기의 생활환경변화> 기초강연.

위 용 사
이 가 리 보 시 고 제 1 권 2 권 3 권 4 권 5 권
6 권 7 권 8 권 9 권 10 권 11 권 12 권
13 권 14 권 15 권 16 권 17 권 18 권 19 권
20 권 21 권 22 권 23 권 24 권 25 권 26 권
27 권 28 권 29 권 30 권 31 권 32 권 33 권
34 권 35 권 36 권 37 권 38 권 39 권 40 권
41 권 42 권 43 권 44 권 45 권 46 권 47 권
48 권 49 권 50 권 51 권 52 권 53 권 54 권
55 권 56 권 57 권 58 권 59 권 60 권 61 권
62 권 63 권 64 권 65 권 66 권 67 권 68 권
69 권 70 권 71 권 72 권 73 권 74 권 75 권
76 권 77 권 78 권 79 권 80 권 81 권 82 권
83 권 84 권 85 권 86 권 87 권 88 권 89 권
90 권 91 권 92 권 93 권 94 권 95 권 96 권
97 권 98 권 99 권 100 권

<토 론>

주부 대상 인터넷 사이트 운영의 실제

김 경 신(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21세기 정보화 시대에서는 국가간, 기업간 뿐만 아니라 개인간에도 새로운 공간, 소위 지식의 땅이라고 불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가정학 자들도 이론을 현실로 접목시키는 방법에 있어 정보사회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과 상담 등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환영받고 있으며, 특히 가정학 분야에서의 이러한 활용은 학문의 실천적 성격에 비추어 매우 필요한 일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발표자가 인터넷 사이트의 한 예를 제시하면서 가정관리학의 정보매체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전달 사이트들은 딱히 전공자들이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 만큼, 누구라도 이를 구성하여 일정한 정보 전달 활동을 해 나갈 수 있으므로 전공자 입장에서는 학문의 전문영역이 사라지는 듯한 위기 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등장하고 있는 많은 주부 혹은 가족 관련 사이트(familynet, goodfamily, home21, two-income 등)들은 처음부터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많아 딱히 가정학 관련 전공자 혹은 전공 영역에서 접근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 및 상담 영역에서의 이러한 비전문적 접근은 매우 경계해야 할 부분이고, 따라서 전공자로서는 빠른 대응으로 이러한 사태에 직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인터넷 사이트 운영은 장기적으로는 자체 경영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러야 하고 더 나아가 수익이 창출되고 전공자의 진출 분야로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순수한 전문적 자원활동 이외에 좀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발표자가 예로 제시한 jubu21의 경우에도 본격적인 수익창출 단계로 진입하려면 산적한 과제가 많으리라 본다.

발표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관련 사이트들과 비교하면서 이러한 노력과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제시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기존에 확보한 전략과 시행착오 과정에 대한 설명도 부가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사이트의 운영에 관심이 있는 전공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인터넷 사이트들이 일정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사이트들의 독자경영은 매우 어려운 일임이 사실이다. 직접적인 상품 판매 이외에는 교육 및 상담을 유료화하는 일 등은 아직 그다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광고의 확보, 정보제공이나 상담의 유료화, 온라인 세일즈,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개선, 리스크 방지와 정보통합을 위한 전략적 제휴, 운영체계의 통합경영 방법 모색 등, 정보 및 지식·물적 자원의 판매 수단이 확실히 확보되어야 하고 동시에 관리체계의 효율화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보다 현실적으로 수립되어야 창업으로서의 본질적 목적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전공자들이 social service 차원에서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하려는 것은 이제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본 토론자는 특히 가족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주부 대상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이버 상담의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결론적으로 몇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보충하고자 한다.

최근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발달과 다양화로 인하여 다양한 상담 방법이 활성화되고 있다. 기존의 면대 면 상담이나 전화 상담 이외에 전자메일, 온라인 PC 통신, 인터넷 등을 이용한 상담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상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활용도 새로운 상담의 형태로 떠오르고 있다.

사이버문화의 확대는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특히 한 장소에서 모든 사회적 행위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상담기관에 내담자의 내방률은 점차 감소하리라 추정되며, 전화상담 역시 인터넷 상담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 컴퓨터가 주생활도구인 20대가 성인세대로 정착할 1~20년 후에 완전히 자리잡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인터넷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가 1,000만명에 가깝고 연평균 51%씩 증가하여 오는 2002년이면 기존의 전화수요를 훨씬 능가하는 1,500만명에 가깝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 상담기관의 미래도 이러한 사이버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대응하는가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다. 현재 상담자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러한 사이버 생활 기법에 적용될 수 있는 상담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것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상담을 활성화하게 되면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관련

상담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상담기관의 전문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특별한 노하우를 가진 상담기관의 부상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학 관련 전공자의 상담 사이트 운영은 미래의 학문적 발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상담자는 사이버상담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므로 상담과 컴퓨터 전반에 관하여 깊은 지식과 응용 능력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가정학 전공 상담원들도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리라 보며 새로운 자격증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상담기관은 상담전문가 이외에 전산전문가, web 디자이너, 자료전문가 등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시도는 앞서 언급한대로 상담 사이트들도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는 근본적인 과제를 안고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영마인드의 제고, 수익매체와의 연결, 시장성의 확보 등이 필수적이다. 특히 가정학의 소극적인 특성을 벤처경영의 기본 방향에 연결시킬 수 있는 과감한 전략이 필요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 마케팅과 고객 관리 (수익이 높음)
 ○ 교육, 상담, 상담 프로그램 (수익성이 낮음)
 ○ 상담 프로그램 Com-C의 병행 필요
 ○ 상담 프로그램의 수익
 ○ 비용의 최소화
 ○ 20대가 선호하는 프로그램
 ○ 사이버 상담이 이쪽의 강점
 ○ 가족의 복지 관련
 ○ 상담이 관련 있는 것, 이후 병행
 ○ web design이 관련
 ○ 내 애꾸를 제공하는 시스템이